

한글 맞춤법

[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2017. 3. 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ㅃ(쌍기역)	ㄸ(쌍디귤)	ㅆ(쌍비읍)	ㅆ(쌍시옷)
ㅈ(쌍지읒)			
ㅙ(애)	ㅞ(예)	ㅟ(웨)	ㅠ(와)
ㅢ(외)	ㅣ(워)	ㅤ(웨)	ㅦ(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ㅋ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	ㅟ	ㅡ	ㅣ	ㅥ	ㅦ	ㅨ	ㅩ
	ㅪ	ㅫ	ㅬ	ㅭ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측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각두기	딱지	색시	쌈뽕(~쌈뽕)
법석	갑자기	몹시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말이	마지		활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걸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달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ㅌ’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돛자리	엷샘	웃어른	햇웃
무릎	사뭇	얼뿔	자칫하면	뭇[衆]
엷	첫	헛		

제4절 모음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ㄷ’은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메(連袂)	연메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계시다	계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닝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픽어쓰기	피어쓰기
무늬[紋]	무니		씩어	씨어
보늬	보니		틱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닐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히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종(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나?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真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룰		선율(旋律)	선룰
비율(比率)	비룰		전율(戰慄)	전룰
실패율(失敗率)	실패룰		백분율(百分率)	백분룰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鎰)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謫)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뢰, 누, 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겹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탁탁		꼳꼳하다	꼳꼳하다
쌉쌉	쌉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씩		눅눅하다	눔눅하다
뚝뚝뚝	뚝뚝뚝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쓱쓱	쓱쓱쓱		썉썉하다	썉썉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잡잘하다	잡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쭈쭈하다	쭈술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잡잘하다	잡잘하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발이	발을	발에	발도	발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박이	박을	박에	박도	박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삼이	삼을	삼에	삼도	삼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꿇이	꿇을	꿇에	꿇도	꿇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쫓다	쫓고	쫓아	쫓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늡다	늡고	늡어	늡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훑다	훑고	훑어	훑으니
웁다	웁고	웁어	웁으니
웁다	웁고	웁아	웁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겹어들다
틀어지다	흘러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	------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얹아	얹아도	얹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취어	취어도	취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ㄷ'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볼다:	부니	분	봅니다	부시다	부오
동글다:	동그니	동근	동글니다	동그시다	동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ㄷ'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ㅌ, ㅍ'가 줄어질 적

푸다:	퍼	폈다		뜨다:	떠	떴다
끄다:	꺼	꼈다		크다:	커	켰다
담그다:	담가	담갔다		고프다:	고파	고팠다
파르다:	파라	파랐다		바쁘다: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ㄴ'로 바뀔 적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심다[載]: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ㅁ’이 ‘ㄴ’로 바뀔 적

깎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밟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	----	-----	-----	-----	-----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ㄹ’의 ‘ㄹ’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달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줄음 죽음 앞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蹠] 목거리(목병) 무너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볼긋볼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교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짜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홀지다 낫두리 빛깔 옆맹이 앞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늑정이 덮개 뜰계 질
 갑작갑작하다 갑작거리다 뜰적거리다 뜰적뜰적하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늑수그레하다 얹죽얹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작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쭙하다 실끔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잘따랗다 잘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낚치 울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뿔리다
 울리다 낚이다 쌍이다 활이다 굳히다
 굵히다 넓히다 얹히다 얹히다 잡히다
 돌구다 솟구다 돌우다 갓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프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받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엮치다 부딪프리다/부딪트리다
 쏘프리다/쏘트리다 꺾프리다/꺾트리다
 찢프리다/찢트리다 흘프리다/흘트리다

[붙임] ‘-엮-,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엮다 우읍다 미쁘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깎쪽이	깎जू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쌉쌉이	쌉새기
눈감작이	눈감짜기	오펙이	오펙기
더꺾이	더꺾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빼죽이	빼जू기	홀죽이	홀जू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각두기	쟁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때미	부스러기	빼जू기	얼루기	칼썩두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갑작이다	갑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덕이다	속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쳐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꺾이다	지껴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퍼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궂이 께궂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궂이 오펙이 일찍이 해죽이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텅텅하다 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꽃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웃
젓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헛웃음
홀아비	홀몸	흙내		
값없다	겉늬다	끓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발내다	벌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젻노랗다	시꺼멓다	씻누랗다	엇나가다	엷누르다
엷든다	웁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颯]’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파님(팔-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삽(불-삽)	부손(불-손)	짜전(쌀-전)
여달이(열-달이)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짚고리(바느질~)	사흔날(사흘~)	삼짚날(삼질~)
섣달(설~)	순가락(술~)	이튿날(이틀~)
잔주름(잘~)	꼴소(풀~)	선부르다(설~)
잔다듬다(잘~)	잔다랗다(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긱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넋가지	뒷갈망	넋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넋길	넋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젓더미	조갯살	찢집	챗바퀴	킷값
찢대	햇별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넋나물	아랫니	넋마당	아랫마을	넋머리
잇몸	챗목	넋물	넋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갯열	넋웁	두넋일	넋일	넋입맛
베갯잇	웁잇	갯잇	나뭇잇	넋잇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긱병	머릿방	넋병	붓독	사갯밥
챗강	아랫방	자릿세	전챗집	챗잔
챗종	춧국	콧병	넋줄	넋세
찢기	햇수	찢가루	찢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훗날	넋마루	양찢물
----	-----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	-----	-----	----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콧간(庫間)	챗방(賞房)	숫자(數字)	챗간(車間)
넋간(退間)	넋수(回數)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넋짜리(대 ㅂ 짜리)	넋짚(메 ㅂ 짚)	넋찌(벼 ㅂ 찌)
입때(이 ㅂ 때)	입짚(이 ㅂ 짚)	접때(저 ㅂ 때)
좁짚(조 ㅂ 짚)	헐짚(해 ㅂ 짚)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 ㅎ 가락)	살고기(살 ㅎ 고기)	수캐(수 ㅎ 개)
수컷(수 ㅎ 컷)	수탉(수 ㅎ 닭)	안팍(안 ㅎ 박)
암캐(암 ㅎ 개)	암컷(암 ㅎ 컷)	암탉(암 ㅎ 닭)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엿그저께
어제저녁	엿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덜고, 덜지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뭇을/무얼/뭇
무엇이	뭇이/무에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엇-’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탸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ㅑ’ 뒤에 ‘-어, -엇-’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갸다
내어	내	내었다	노다
베어	베	베었다	뵈다
세어	세	세었다	췌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해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ㅛ/ㅞ, ㅛㅛ/ ㅞㅞ’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교아	괘		교았다	괘다
보아	봐		보았다	봤다
쏘아	췌		쏘았다	췌다
두어	뒤		두었다	뒀다
추어	췌		추었다	췌다
주어	췌		주었다	췌다

[붙임 1] ‘농아’가 ‘놉’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ㅛ’ 뒤에 ‘-어, -었-’이 어울려 ‘괘, 췌’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뵈		되었다	뵈다
뵈어	뵈		뵈었다	뵈다
쇠어	췌		쇠었다	췌다
췌어	췌		췌었다	췌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ㅞ’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ㅞ, ㅟ, ㅛ, ㅜ,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짜이다	췌다		누이다	뉘다
펼이다	페다		뜨이다	퓌다
보이다	뵈다		쓰이다	췌다

제38항 ‘ㅏ, ㅓ, ㅕ,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짜이어	쌌어 짜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봔어 보여	쓰이어	씩어 쓰여
쫘이어	쫘어 쫘여	트이어	띄어 트여
누이어	눠어 누여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짝	집 한 채	신 두 켤레	복어 한 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뵈이	깨끗이	나뵈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으)ㄹ 거나	-(으)ㄹ 꺼나
-(으)ㄹ 결	-(으)ㄹ 쥔
-(으)ㄹ 게	-(으)ㄹ 께
-(으)ㄹ 세	-(으)ㄹ 쉼
-(으)ㄹ 세라	-(으)ㄹ 쉼라
-(으)ㄹ 수록	-(으)ㄹ 쭉록
-(으)ㄹ 시	-(으)ㄹ 씨
-(으)ㄹ 지	-(으)ㄹ 찌
-(으)ㄹ 지니라	-(으)ㄹ 찌니라
-(으)ㄹ 지라도	-(으)ㄹ 찌라도
-(으)ㄹ 지어다	-(으)ㄹ 찌어다
-(으)ㄹ 지연정	-(으)ㄹ 찌연정
-(으)ㄹ 진대	-(으)ㄹ 찌대
-(으)ㄹ 진저	-(으)ㄹ 찌저
-올시다	-올쪄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ㄹ 까?	-(으)ㄹ 꼬?	-(스)ㄹ 니까?
-(으)리까?	-(으)ㄹ 쏘냐?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꾼	귀때기	귓대기
익살꾼	익살꾼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꾼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꾼	뒤꿈치	뒷굽치
장난꾼	장난꾼	팔꿈치	팔굽치
지계꾼	지계꾼	이마때기	이마때기
때깎	때깎	코 때기	코때기
빛깎	빛깎	객적다	객적다
성깎	성깎	겸연쩍다	겸연쩍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뺨치다(다리를 뺨친다. 멀리 뺨친다.)	뺨치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겨울은 몹시 춥 <u>더</u> 라.	지난겨울은 몹시 춥 <u>드</u> 라.
깊 <u>던</u> 물이 알아 <u>졌</u> 다.	깊 <u>든</u> 물이 알아 <u>졌</u> 다.
그렇게 좋 <u>던</u> 가?	그렇게 좋 <u>든</u> 가?
그 사람 말 잘하 <u>던</u> 데!	그 사람 말 잘하 <u>든</u> 데!
얼마나 놀랐 <u>던</u> 지 몰라.	얼마나 놀랐 <u>든</u> 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 <u>든</u> 지 사과 <u>든</u> 지 마음대로 먹 <u>어</u> 라.	배 <u>던</u> 지 사과 <u>던</u> 지 마음대로 먹 <u>어</u> 라.
가 <u>든</u> 지 오 <u>든</u> 지 마음대로 해라.	가 <u>던</u> 지 오 <u>던</u> 지 마음대로 해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돌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히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달치다	문을 힘껏 달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텃났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발치다	술을 체에 발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돌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얇	얇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파가	이파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결이다	김장 배추를 결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